

집·상가 매물로... 광주지역 '강제 경매' 쏟아진다

광주지역에서 빚을 갚지 못해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상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광주 집합건물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은 635건으로 집계. 전년 신청 건수(608건)를 이미 넘어섰는데 경기 침체 장기화와 자영업 부진, 부동산 시장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공정에 따르면 올해 1~5월 광주 강제경매개시 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84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집합건물은 635건으로 전

체의 75.6%를 차지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한 건물 안에 독립된 소유권이 존재하는 부동산이다.

광주 집합건물 강제경매 신청은 최근 들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642건이던 신청 건수는 2021년 497건으로 감소했지만 2022년 530건, 2023년 590건으로 다시 늘었고 2024년에는 808건까지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608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올해는 불과 5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전체 강제경매 신청 건수도 증가 흐름

올해 5월까지 635건...전년 연간 신청 건수 넘어 경기 침체 장기화에 서민 주거·생업공간 직격탄

을 보이고 있다. 광주의 전체 강제경매 신청은 2020년 1313건, 2021년 1013건, 2022년 1074건, 2023년 1128건, 2024년 1359건, 2025년 1110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5월까지 840건이 접수돼 현재 추세로 이어질 경우 지난해 수준을 웃돌 가능성이 높다.

전남 역시 집합건물을 중심으로 경매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 집합건물 강제경매 신청은 2020년 582건에서 2021년 727건, 2022년 713건, 2023년 638건, 2024년 718건, 2025년 78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5월까지 369건이 접수됐다. 반면 전체 강제경매 신청은 감소세를 보였다. 전남은 2020년 6973건에서 2021년 6229건, 2022년 5462건, 2023년

5493건, 2024년 5420건, 2025년 4337건으로 줄었다. 올해 5월까지 2023년이 접수됐다. 전체 부동산 경매는 감소하고 있지만 주거·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집합건물 경매는 오히려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법원의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채무 상환 능력이 악화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 공사대금, 각종 금전채권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진행된다.

지역 업계에서는 고금리와 내수 부진,

소비 위축에 따른 자영업 경기 악화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상가 공실 증가와 부동산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자산 처분을 통한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졌고, 결국 강제경매 신청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집합건물 강제경매 증가는 가계와 자영업자의 재무 부담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지역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경매시장으로 유입되는 물건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재)광주SW미래채움센터를 방문한 송정초등학교 6학년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AI·SW 체험 및 피지컬 교구 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

GICON, 광주SW미래채움센터 AI체험 프로그램 성료

송정초등학교 학생 80명 대상 교구 활동 전개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최근 광주SW미래채움센터를 방문한 송정초등학교 6학년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AI·SW 체험 및 피지컬 교구 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의 개념을 흥미로운 체험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특히, 스스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해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

의 기본 코딩 능력과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이날 센터를 찾은 송정초 학생들은 두 개의 체험 공간에서 몰입도 높은 활동을 펼쳤다. 우선 'AI·SW미래기술존'에서는 AI메이커존, 로보틱스존, AI체험존을 비롯해 자율주행존, XR(확장현실) 체험존, VR(가상현실) 체험존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된 공간을 차례로 둘러보며 미래 기술의 발전상을 온몸으로 체험했다.

이어서 진행된 '시피지컬존'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만지고 조작하는 역동적인 수업이 이뤄졌다. 학생들은 팽공로봇, 카미봇, AI미래역량 어드벤처 등 다양한 AI 피지컬 교구를 활용한 미션을 수행하며 창의적인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웠다.

'SW 미래채움(광주)' 사업은 디지털 미래인재 육성과 지역의 SW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광역시 교육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다. SW교육 통합 인프라 구축, 지역 내 전문 강사 양성 및 교육을 통한 일자리 지원, 미래 인재 육성 및 교육 생태계 조성 등을 목표로 운영 중이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전남진흥원, XR 혁신허브 성과 전국에 알린다

〈확장현실〉

대한민국 가상융합산업대전 참가...성장 기회 제공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국내 최대 규모 가상융합 전문 전시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지역 XR·AI 기업'의 성과와 우수성을 알렸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대한민국 가상융합산업대전(KMF 2026)'에 참가해 '서남권 가상융합산업 혁신&허브 공동관'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진흥원은 이번 전시를 통해 그동안 발굴·육성한 지역 XR·AI 기업들의 우수 성과를 전국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가상융합산업대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융합(XR·메타버스) 전문 전시회로, 가상융합 기술과 콘텐츠의 최신 동

향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대표 산업 행사다.

이번 공동관에는 ㈜그래피직스, 여행가자㈜, ㈜위치스, ㈜에스씨크리에이티브, ㈜와이그림 등 총 5개 기업이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HMD를 활용한 XR체험부 터 AI 디지털휴먼 대화 서비스, 홀로그램 AI키오스크, 교육용 콘텐츠까지 가상융합(XR·AI) 기술을 집약한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해담 전시를 통해 기업 육성, 기술 실증, 사업화 지원, 시장 진출 지원 등 혁신·허브센터 사업을 통해 창출된 성과를 대외적으로 확산하고자 참여했다.

윤용성 기자 y0140@gwangnam.co.kr

또 국내외 바이어 및 투자자와의 비즈니스 연계를 통해 참여 기업들에 후속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이인용 원장은 "서남권 가상융합산업 혁신·허브센터는 지역 기업들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실제 시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해왔다"며 "이번 KMF 2026은 지역 가상융합산업 기업 지원 성과를 전국에 알리고, 지역 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가상융합대전(KMF 2026) 운영은 전남 가상융합산업 혁신센터 및 서남권 가상융합산업 허브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지역 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서남권 지역 가상융합 산업 생태계 조성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서남권 디지털 혁신을 견인하고 있다.

윤용성 기자 y0140@gwangnam.co.kr

중기부, 은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 강화

병원·변호사 등 일부 업종·연매출 30억 이상 점포 제외

정부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내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은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전면 개편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은누리상품권 가맹점 요건 정비와 부정유통 차단을 골자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핵심 변경 사항은 가맹점 등록 자격 제한이다. 앞으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은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넘는 점포는 신규 등록이 불가능하다.

기준에는 등록할 수 있었던 보건업(병·의원·한의원 등), 수의업,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도 제한 업종에 새로 포함된다. 총 제한 업종 수는 기존 29개에서 33개로 늘어난다.

등록 이후에도 매출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다.

단, 시행일 이전에 이미 등록된 가맹점은 최초 갱신 전까지 유예 기간을 적용할 방침이다.

부정유통 단속도 강화한다. 실제 물품이 나오지 않거나 거래 없이 은누리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경우 혹은 제3자와 공모해 부정 유통하는 경우에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기준에 단순 주의 조치에 그쳤던 비대면 방식의 상품권 결제 수취, 소비자에게 받은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비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적용한다.

이들 업종은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가맹점의 갱신 신청도 당부했다. 현재 등록된 가맹점 절반 이상은 오는 10월 유효기간이 종료된다. 만료일 기준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은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 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정주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은누리상품권이 영세상인의 매출 증대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은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2026.06 vol. 157
세상과 함께 문화와 함께 광남일보 매거진

전라도人

구독문의:062)370-7080 광고문의:062)370-7070

초대석



이혁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업현장 화학사고 반복 '예방 중심 체계' 전환 시급

커버스토리



이인곤 광산이시 도문중 총회장

"필문 이선재 선생, 조선 단종 스승이자 광주 빛낸 대표적 인물"

영화 '일과 사는 남자' 재조명... 고려시·태종실록 편찬 참여
광주목 복권 앞장·광주항학 창안... 호남 대표 사립 '우목'

전남의 보물섬



여수·거도
다도해 호령 '달개섬', 백척간두 벼랑 끝에서 만나다

지금 이사람



김진숙 대한민국 미용명장 1호
머리카락으로 피워낸 예술 반세기 지나 예술이 되다

남도 예술인



조혜수 배우
"광주 이야기" 현재로 더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고 싶다"